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주)건국이엔아이

소방정책에서 관리·윤곽하면서 소방장비 개선과 인력 충원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은 행정력이 있다면 소방 관의 처우개선은 또 한 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리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예산인원은 크게 줄었다. 다음 장관에 시도 되고한 '제1차 인력보충'도 눈물겨운 노력, 예산 수순을 밟을지, 예산이 확보될지 걱정된다.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안전처의 운영을 거둔 '연도비'가 지급된다.

실제로 소방장비와 인력, 국가회계 관련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많지않고 있다. 국가회계 예산으로 인건비가 될 경우, 국가회계 예산에 대한 추속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안전처 예산 100억의 실적과는 다르다. 국회 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논어를 향해서 의원은 "안전의 주요 보드 상임수거 공백"이라며 "특별한 예산으로 조차 결미도 못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후려박힌다."고 말했다.

인수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과가 끊이지 않는 데도 제대로 된 구조활동 등 피해 감소 시스템이 없어



▲김재민 회장

차별화된 기술력의 바탕 R&D 투자

(주)건국이엔아이는 소방기술의 R&D에 대한 중요성을 앞서 인식하고 세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소방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2001년 부설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호시미, 세울라기술, 한국국제대, 경일대 등 우수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맺고 중앙대, 한국국립대, 서울산업대 등 이류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박정원 회장은 R&D 사업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정에도 중요한 투자이다. 투자비용 대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없게 경쟁력의 의미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지금의 (주)건국이엔아이를 있게 한 비결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국기연구개발 사업 현황

연구명	연도	공동수행기관
1. 중장비 water mist를 이용한 화재예방개발	2007	인원배치연구소
2. 고압 water mist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200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 water mist gun 개발	2004	
4. 협동화재 진압 및 지원 소방시스템 개발	2005	
5. 화재예방을 위한 고압 water mist gun 개발	2005	
6. water mist와 소화기 시스템 개발	2005	
7. 중장비 대량무 노출 개발	2006	
8. 소화기 및 소화기 시스템 개발	2007	한국화학연구원
9. water mist 자동 소화기 개발	2007	
10. 사람 및 화물 운반용 water mist nozzle 개발	20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 문화재 및 박물관 water mist exchange system 개발	2009	소방안전원
12. 협동화재 water mist nozzle	2009	한국화학연구원
13. 대형화재 예방용 water mist gun 개발	2010	소방안전원
14. 대형화재 예방용 water mist system 개발	2011	소방안전원
15. 차량용 대량무 노출 개발	2011	

기업 경쟁력 그리고 제품 경쟁력

▶ 제품문화와 잠재시장

세계 최대의 국내 제조업체에서 선취한 중장비 인력 등 분사 소분사는 (주)건국이엔아이가 개발해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문화적인 중요도를 비롯해 시장규모와 제품개발 등에 선취되어 있다.

"지난 200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국내 중요 문화유산에 방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내 문화재 방재기술을 접하게 됐는데, 한국의 특수 건물들을 방문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선취한 일부 소방시설의 현황과 방재시스템을 접하며 보니 용역에 대해 더 큰 예산이 투입될지라도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박정원 회장은 말했다."



▲제품문화와 잠재시장



이후에도 (주)건국이엔아이는 문화재에 적용되는 수직소화기를 개발하고 나선다. 수직식, 직사각, 분사식, 회전식 등 국내 제조문화에 방재시스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소화기

▶ 레이저비파탐색기 (주)건국이엔아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레이저비파탐색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장치와 연쇄에 음향 경보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시각적·청각적 안내를 제공한다. 다기능 레이저비파탐색기 화재로 표시를 통해 연기 제거 효과 또한 발휘한다. 또 기존 제품과 달리 비파탐색기의 범위가 180도 10초까지 주사기 가능하고 레이저 비파탐색기 10초에서 60초의 유효시간이 반영됨에 따라 한 대로 2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비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주사되는 화질과 방향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도록 전체 사용자 임의로 설치 각도와 유도 표시 조정을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설치·사용이 가능하다.



▲GAS FINDER™

▶ GAS FINDER™ GAS FINDER™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시 부피를 흡입해 가스화합물 배출에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후자를 통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하여 별도의 전원이 없이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진압이 가능해 준다.

▶ FIRE REX™



전기발전 내부 자동소화 장치 FIRE REX™는 밀폐된 공간의 화재 발생 시 화재가 가장 근접한 곳의 루프가 화재에 밀려 나가거나 인명 손실에 도달하게 되면 감열식 루프가 파열되면서 노즐이 열을 해 소용량이 내 불꽃 소화력을 발휘하는 장비이다. 특히 수직건물, 천원 공간 장치, 천장기 등의 전기 발전부가 있는 밀폐된 내·외부에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간단한 설치 가능하여 소방용 고압소화 안전관리(방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안전성 높은 FIREX 123 3인용 소화기형 사용 가능하다.

노력하는 진심 필요 직원들이 다고 싶은 회사

박정원 회장은 소방용품에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권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진심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엔지니어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중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소방 관련 자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깊게 파고 들 수 있어야만 진정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의와 같은 화력이 능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화력의 선진 기술은 국내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해줄 것입니다. 발간시점까지 중장비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 또한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주)건국이엔아이는 2014년 한국안전문화주간 안전대상 부문에서 15년간 꾸준히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수상 수상했다. "우리 직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화력의 존재 확고와 다음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든 화력이 만들어졌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도 사람이라는 박정원 회장의 경영이념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이다.



최상 수상경력	•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장 (2008년)	• 전국대형소방학회 교수연구회 표창장 (2013년)
	• 대한민국 안전대상 (2012년, 2009년)	• 국무총리표창장 (2014년)
	• 소방장비표창장 (2013년)	• 강원도지사표창장 (2014년)
	• 성동구청장 감사장 (2013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

(주)건국이엔아이는 지역단체에 기부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우수 대학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난 해소에 힘쓰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원 회장은 사업을 잘 한다는 데는 크게 이익을 남기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내 가족, 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설계·공사·감리하면 지금보다 더욱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소방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건국이엔아이의 경영력 그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국민안전에 대한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위해 R&D에 주력할 것이라는 박정원 회장의 마지막 말에서 본래부터 소방산업의 눈부신 미래가 더욱 안전해질 대한민국에의 모습이 보인다.